

일본, 행정구역별 사과의 적정 출하량 배분 결과 발표

< ' 17. 6. 23. 오사카 지사 >

□ 보도매체 : 일본농업신문 / 6. 23.자

□ 주요 내용

- 일본 농수성이 전망한 적정 출하량(72만 5천 톤)을 토대로 일본 전국과실생산출하안정협의회는 2017년 주요 사과 산지의 출하량을 행정구역별로 배분하였다.

<2017년 주요 사과 산지 적정 생산량 · 출하량>

(단위 : 톤)

행정구역	2016년 생산량	2016년 출하량	2017년 적정 생산량	2017년 적정 출하량	적정 출하량 내역	
					생식용	가공원료용
홋카이도	7,590	7,010	8,000	7,300	6,700	600
아오모리	447,800	406,300	460,000	409,000	343,000	66,000
이 와 테	43,800	37,800	46,000	42,000	38,000	4,000
아 키 타	2,500	22,200	22,400	20,000	18,500	1,500
야마가타	45,700	39,900	47,800	43,000	39,000	4,000
후쿠시마	27,000	23,700	28,600	25,500	24,000	1,500
야마나시	864	740	1,000	900	800	100
나가노	142,100	125,000	160,000	151,000	131,000	20,000
전 국	765,000	684,900	810,000	725,000	625,000	100,000

* 출처 : 일본농업신문 및 농림수산물통계자료

-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11월 · 12월을 전년 대비 3% 줄이고, 1~5월은 5% 늘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만생종이 많이 출하되는 11~12월 출하를 제재하여 저장으로 돌림으로써 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